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45

이미 입적해 버린 그 분을 처음 뵈던 그 날의 그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선문(禪門)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인도해 주신 스승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법은(法眼)이었던 그 분을 만나러 가는 마음은 자못 긴장돼 있었다. 평소 깊고 자상하게 공부 길을 이끌어 주시던 분의 안내로, 서울에 잠시 들리신 그 분을 뵈 수 있었다. 대면의 순간, '아! 대단한 분이시구나. 확실하고 탄탄한 자기 삶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전율과도 같은 느낌이 왔다. 앞 뒤 분간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 대학생의 눈이었건만, 단번에 신뢰가 가는 격(格)에서 풍겨 나오는 그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강하게 직감되었다. 넓죽 큰 절을 린 후 이어진 몇 마디 대화는 그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은 직접 만나야만 확인되는 느낌이 있다. 직접 대면이라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생생한 생명의 감(感)이었다. 그의 모든 이력이 담긴 눈빛, 말, 표정, 온

몸개버린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제자에게 스승은 말한다. '알아야 할 지식은 전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눈이 안 열렸다.' 제자의 작업을 계속 지켜보는 스승. 마침내 한 순간 어느 손놀림의 미묘 섬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이제 됐다. 비로소 눈이 열렸구나. 이제는 네 길을 가라.'

마음 공부의 사정은 더욱 그렇다. 마음의 이치가 어둡고, 무아(無我)며 공(空)의 도리가 어둡고, 사사무(事無事)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법이 어둡고, 화두는 어떻게 드는 것이고 위빠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야 아무리 이론에 흰해도, 실제 선문(禪門)에 들어 스스로 공부를 지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직 문 밖에서 다른 집 보물 해아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먼저 열린 사람은 후학의 발길 이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언어 밖에서 한다. '말인 즉 그렇다마는--' 하며 내치고 있다. 어느 때 남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엉뚱하다고도

몸과 몸 만남의 교육

몸에 배여 풍겨나오는 독특한 분위기. 한 생명이 연출하는 그만의 색깔. 그 생명의 개성은 몸과 몸이 마주하고 눈빛과 눈빛이 직접 교류해야 감(感)이 제대로 전달된다. 이런 저런 말로 분석하기 이전의 '공장 다가오는 생생한 전체 느낌'은 그렇게 직접 만나야 온전하게 확인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직접 만남'에서 오는 '교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선생은 시시각각 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강의를 진행한다. 선생의 강의 내용과 학생들의 이해 정도가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수업 분위기는 계속 변화한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읽어가면서 강의의 수위와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작품'이 만들어진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몸과 몸의 직접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험이 토대가 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에서는 이 '직접 만남'이 필수적이다. 스승으로부터 도자기 굽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남김없이 배운 제자. 그가 자신 있게 만들어 내놓는 작품을 스승은 계속 아니라며

눈빛으로 몇마디 대화로도 지식이나 기술 전수되는 법 할 어떤 계기에서 선택은 후학이 문 안에 들었음을 문득 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간접 만남', 그 새로운 관계 맺기가 뚜렷한 문화 현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 새로운 만남의 방식은 교육 문화도 흔들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직접 대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사이버 교육이 힘차게 대두하는 중이다. 학교 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비교할 때, 사이버 교육은 그 지식 전달 방식이나 분량의 효율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제량적 효율성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대면(對面)교육 고유의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스승과 제자가 온 몸으로 교류하며 퇴위 주어진 불문(佛門)의 사적(私的) 대면(對面) 교육의 공능은 교육의 본질과 닿아있다. 인간의 체취가 증발된 사이버 교육은 화려할지 몰라도 공허하기 쉽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san.ac.kr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수행일과

참물자의 길

울력

울력은 사찰에서 대중들이 함께 모여 하는 육체노동을 말한다. 세간을 벗어난 사찰에서는 공양을 나르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는 일까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힘을 합쳐 일하는 울력은 예전부터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사찰의 대소사는 모두 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울력은 예불, 참선 등과 함께 사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들의 수행 일과다.

울력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 도랑의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길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 해우소의 인분을 치우는 일, 채소를 가꾸는 일, 모내기 하는 일, 불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찰에서 울력이 많은 계절은 역시 늦가을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산사의 월동 준비를 위해 김

장과 매주 담그기, 땀감 준비하기 등을 위해 대중들이 모여 팔을 걷어부친다.

60세가 넘는 지금도 해마다 김장때면 울력에 참가한다는 동봉스님(종주 흥천사 주지)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장만하기 위해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모여 시래기를 가리며 배추나 무를 씻고 구멍이 파는 등 힘을 합쳐 김장 울력을 한다"며 "승속을 떠나 새참도 먹어가면서 울력을 하다보면 어느새 우의가 돈독해짐을 느끼게 돼 좋다"고 말한다.

울력은 단지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의 방편만으로도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행의 한 일과(日課)로서 행해진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물론이고, 재가자들의 단가 출가수련회에는 반드시 울력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함께 모여 땀흘리고 일하다보면 협동심도 길러지고 도반들 간에 정도 쌓이게 된다.

울력의 정신을 잘 나타낸 것으로

중국 당나라때의 스님인 백장(百丈) 선사(749-814)가 남긴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꼽을 수 있다. 이 말은 백장 선사가 90세가 되어서도 다른 대중들처럼 울력을 하므로 제자들이 어느날 그의 농구(農具)를 감추었더니, 단식하며 그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원주 영천사 지상 스님은 "울력의 매력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럿이서 함께 하는데 있다"며 "혼자 해서는 힘들 것 같은 일도 여럿이 함께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라 손쉽게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울력의 전통은 많은 대중이 모여



◁사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울력중의 하나가 모내기다.

청소·농사·불사 등 도반간 情도 쌓여

있는 총림(叢林)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찰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재가불자들이 하는 봉사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울력이라 볼 수 있겠다. 장애인 돌보기, 독거노인 무료 급식 봉사, 복지시설 수리 해주기 등 재가불자들의 자원 봉사 활동도 하나의 울력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초동 정토회관 건립과 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성적인 울력이다. 개원날까지 하루에 20-30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멘트

와 목재 같은 건자재 운반, 현장정착 소 등을 도맡아 가며 1백50일 동안의 울력으로 회관을 세웠다. 울력의 힘이 아니었으면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불사다.

울력을 단순한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여기면서 대중들과 마음을 합쳐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물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유통판에 대한 답서(2)



禪과 21세기

"이 도리(道理)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말다 하여도 자기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보고 눈을 감아도 없어 지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다물어도 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계합하려 한다면 벌써 심판 팔천리나 어긋나 버립니다. 그대가 마음을 씌어 없는 바로 그곳이 가장 힘을 더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자들은 대부분 힘을 써서 찾고자 하니, 찾을수록 더욱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욱 어긋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도리(道理)는 마음의 실상(實相)이다. 마음의 실상은 실재(實在)이기는 하지만 상(相)이 없다. 실상이란 말은 허상(虛相)에 상대하여 만들어진 말일 뿐이다. 반면에 우리가 상(相)으로 인식하

는 모든 경계는 실재가 아니므로 허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相)을 좇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실재를 알아야 한다.

마음의 실재란 무엇인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상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마음이 움직이면 상을 만들어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도 없다.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은 마음은 있다. 아상(我相)·인상(人相)·세계상(世界相)·중생상(衆生相)·여래상(如來相)이 모두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말하고 침묵하고·보고·듣고·가고·있고·놓는 행위들이 모두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마음은 이처럼 모든 행위와 작용을 하지만, 스스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파악함에 생각을 움직

여서 파악하려 든다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인데 다시 마음을 찾으려 하면, 찾아보아야 그것은 마음에 관한 허상(虛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찾는 공부에서는 생각을 쉬어라고 하는 것이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함정이 있다. 생각을 쉬어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일어나는 족족 회피해버리고 문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텅빈을 추구하는 것을 공부라고 여기거나,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직 하나의 대상에 의식

을 집중하여 그 대상에 의식을 집어매고서 의식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함정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생각을 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신다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알 수가 있는가? 지금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람, 지금 마음을 찾고자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찾기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노릇이다. 찾고 있는 자기가 바로 찾고자 하는 자기인데 또 무슨 자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마음찾기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일

기를 찾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찾기 말라고 하는 것이고, 찾기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모두 아무 일 없이 마음을 쉰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함정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공부의 어려운 점은 마음공부의 전 과정을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말로써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말이란 모두 상(相)이기 때문에, 상 아닌 실재를 상인 말로써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설명은 모두 방편일 뿐이고, 그 방편을 계기로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공부인의 몫이다. 그리고 이 몫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발심(發心)이다.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영업사원모집 *

